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암에 걸린 여성들의 외모 가꾸기를 지원함으로써 환자들이 자신감과 재활 의지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방문판매원들은 자원봉사로 참가한다. 이 활동을 통해 환자들은 자신감을 얻고, '방문판매원들은 좋은 일을 해서 기분 좋고, 회사는 종업원 만족도와 화장품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사회공헌으로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다.



2010년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지구상 최빈국이라는 방글라데시의 경제 상황에 집중했다. 우선 빈곤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기관인 그라민 뱅크와 손을 잡고, '유니클로-그라민 조인트 벤처'인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판매되는 티셔츠 1장의 시장

가격인 60센트 수준에 맞춰, '저소득 빈민을 위한 1달러 미만의 의류상품'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제품의 기획, 생산, 판매까지 현지 인력으로 현지에서 완결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의류판매 영업사원으로는 그라민 뱅크의 저소득층 여성 고객들을 고용했다. 교육을 통해 영업사원으로 성장한 그라민 뱅크의 여성 고객들은 판매 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으며 경제적 자립을 얻을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 현지인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으면 위생과 청결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보건 교육도 병행했으며, 입을 옷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옷도 기부했다. 궁극적으로 방글라데시 현지의 풍부한 인력과 저렴한 원료를 활용한 기업 경영 활동을 통해 빈곤, 위생 개선, 교육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이다.



소통을 통해 고객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라

넷째, 기업 사회공헌 활동도 소통이 중요하다. 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도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사회공헌 활동이 더 효과적이다. 고객이 스스로 사회공헌 스토리에 참여하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업은 자원과 아이디어를 담아 스토리 참여의 장안 플랫폼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펩시는 2010년 1억 7천만 명이 시청하는 슈퍼볼 광고를 23년 만에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다. 2천만 달러의 광고예산으로 사회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고객의 아이디어로 기부하는 'Refresh Project'를 통해 리프레시 웹 사이트에 기부 아이디어와 예산을 올리고 공개투표 결과에 따라 선정된 아이디어에 펩시가 기금을 기부하는 형식이다. 건강, 문화예술, 빈곤, 지구환경보호, 불우이웃돕기, 교육 등 6가지 영역에 1,000건 이상을 기부해 140만여 명이 수혜를 입었다. 펩시는 이를 통해 고객 및 지역 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협력업체인 보틀러들이 지역 상권에서 좋은 평판을 획득함으로써 매장 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사업적 성과도 거두게 된다.

미국의 체넬 밀스(General Mills)는 파운드 포 파운드 챌린지(Pound for Pound Challenge)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가 몸무게 1파운드를 줄일 때 마다 11센트를 기부해 빈곤층 가정의 식사문제를 해결해준다. 페이스북과 TV프로그램, 그리고 NGO 단체인 Feeding America와도 연계하여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살을 빼는 것으로 기부에 기여하거나, NGO 단체를 통해 직접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 스스로 지역별 클럽을 만들고 트레이너팀, 운동 비디오, 영양식 레시피 등 다이어트 정보를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고객들 사이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 고객은 더 이상 관객의 입장이 아닌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기업, 존경받는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덕체의 관점에서도 기업을 바라 볼 수 있는데, 지성과 덕성, 그리고 체력을 겸비한 기업이 좋은 기업,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지성이라고 하면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인재들의 매출액, 지속적인 이익창출 등을 꼽을 수 있다. 하겠다. 좋은 기업,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덕성' 사회적 책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도 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덕성에 가장 적합한 것이 '기업 사회공헌'이 아닐까.

